

天癸에 대한 연구

- 『內經』注釋家들의 見解를 중심으로 -

許琪會·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Study on *Tiangui*(天癸) Focusing on the 『*Neijing*(內經)』 commentators' views

The meaning of *Tiangui*(天癸) in *Suwen-Shanggutianzhenlun* 『素問·上古天真論』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has the cause of 'having a child' and it shows the signs to being healthy. But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arguments about what the correct meaning of *Tiangui*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se arguments is to compare and analyze 『*Neijing*(內經)』 commentators' views, and to understand differences between their views.

So I compared and analyzed by focusing on 『*Neijing*(內經)』 text, the other books with explanatory notes, and other commentators' views, and, after that, I got the following results.

1. On the meaning of *Tian*(天), *Wangbing*(王冰) and *Mashi*(馬蒔) considered that it is inborn. *Zhangjiecong*(張志聰) considered it as the *Yang*(陽) producing *Yin*(陰). *Zhangjiebin*(張介賓) regarded it as the *Yang*(陽) of *Gua* symbol. On the meaning of the *Gui*(癸), *Zhangjiebin*(張介賓) said that it is *Yin-qi*(陰氣) which is the prior step to *Xing*(形). *Mashi*(馬蒔) and *Zhangzhicong*(張志聰) said that it is spirit or *Jingxue*(spiritual sanguine) which is the concrete constituents in our body.

2. On the relation between *Tian*(天) and *Gui*(癸), *Mashi*(馬蒔) and *Zhangzhicong*(張志聰) said that *Gui*(癸) is made from *Tian*(天), and *Zhangjiebin*(張介賓) said that *Tian* is intrinsic in *Gui*(癸).

3. On the relation between *Tiangui*(天癸) and *Jingxue*(精血), *Yangshangshan*(楊上善), *Wangbing*(王冰), and *Zhangjiebin*(張介賓) regarded *Tiangui*(天癸) as a concrete matter which is the prior step to becoming *Jingxue*(精血). *Mashi*(馬蒔) and *Zhangjiecong*(張志聰) considered *Tiangui*(天癸) as a concrete matter. *Mashi*(馬蒔) considered *Tiangui*(天癸) as *Jing*(精)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pregnancy. *Zhangjiecong*(張志聰) regarded *Tiangui*(天癸) as *Jingxue*(精血) which controls general physiology of men and women.

4. On the function of *Tiangui*(天癸), *Yangshangshan*(楊上善) and *Wangbing*(王冰) considered that *Tiangui*(天癸) has relation to menstruation, pregnancy, and, production and extinction of *Jing*(精). *Zhangjiecong*(張志聰) argued that *Tiangui*(天癸) strengthens and warms muscle and derma, and controls differential physiology between men and women, and said that the maintenance of its activity is based on the acquired spirit of food. A book of 『*Huangti Neijing Yanjiu Dacheng*(黃帝內經研究大成)』 said that the function of *Tiangui*(天癸)

is to promote generation, to develop the second sexual symbol, and to make growing and aging in body. It also said that Tianguai(天癸) has some relation to kidney and other organs, Chong Meridian, Ren Meridian, Du Meridian, and Dai Meridian.

5. Other commentators of 『Neijing(內經)』 accepted the meaning of Tianguai(天癸) as the prior step of both man's spiritual overflowing and woman's menstruation.

6. On the relation between Tianguai(天癸), and, Chong and Ren Meridians, Yangshangshan(楊上善) and Zhangjiecong(張志聰) said that Tianguai(天癸) has direct relation with two meridians. Wangbing(王冰) said that Tianguai(天癸) and two meridians have no direct relation.

Now I compared commentaors' views of Tianguai(天癸) and studi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views. I concluded that on the concept of Tianguai(天癸), Zhangjiebin(張介賓)'s explanations express well its connotative meaning. And on the function of Tianguai(天癸), Zhangjiecong(張志聰)'s explanations are excellent because he organized well his seniors' views, and extended its meaning by showing Neijing(內經)'s phrases related to Chong and Ren Meridians.

Also, Mashi(馬蒔) suggested that if Tianguai(天癸) comes earlier than normal, people will die soon. But I think that more studies on male and female bodies are needed as to Mashi(馬蒔)'s argument.

Key Words : 『Neijing(內經)』, Tianguai(天癸), Jing(精), Jingxue(精血)

접 수 : 2000년 10월 11일

채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허기화·이용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033-730-0668, yblee@chiak.sangji.ac.kr)

1. 서론

여로부터 자식을 둔다는 것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동양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건강한 후손을 두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의학에서도 '求嗣'의 항목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후손을 둔다는 것은 인간의 신체가 건강하여야 하며 또 어느 정도 성숙해야 한다. 그러므로 후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비단 가계를 잇는 의미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여자는 14세에, 남자는

16세에 '天癸'가 '至'하고, 이에 따라서 여자는 月經을 하게 되고 남자는 射精을 하게 되어 후손을 둘 수 있다.”¹⁾하여 '天癸至'의 상태가 아이를 갖는 전제 조건이 됨을 밝히고 있다. 즉 '天癸至'는 인체가 건강하여 후손을 둘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뜻하니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天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역대로 『內經』 注釋家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王冰이 '天癸'를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는 馬蒔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王冰이 '天癸'를 '月事'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였고²⁾, 張介

1) 王冰 撰,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中國, 1992년, 9쪽, 11쪽.

2) 馬蒔 撰,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

賓은 王冰이 '天癸'를 '精血'로 본 것은 『內經』 원문에 여자의 血과 남자의 精이 모두 '天癸'를 따라서 '至'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견해는 비록 참되다고 할 수는 없을 지라도 그 뜻은 오히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³⁾, 일본의 丹波元簡은 王冰과 張介賓의 견해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다⁴⁾. 이러한 논쟁은 王冰의 注를 각 注家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쟁에서는 무엇보다도 『內經』 각 注釋家들의 '天癸'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 견해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밖에도 張介賓이 제시한 '天癸'를 '氣'로 볼 것이냐, 아니면 '形質'로 볼 것이냐? 하는 '形氣'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⁵⁾, 최근 중국의 학자 趙有臣이 제시한 '天癸'가 '天眞'의 잘못이라는 착간에 대한 논쟁⁶⁾, '天癸'가 물질이냐 아니면 기능이냐 하는 물질과 기능을 통하여 天癸를 정의하려는 논쟁⁷⁾, 그리고 현대 의학적으로 '天癸'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논쟁⁸⁾ 등이 있다.

이러한 논쟁에서도 모두 역대 『內經』 注釋家들의 견해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의 근거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현대 의학적으로 '天癸'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도 역대 『內經』 注釋家들의 注釋 내용의 연장선 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김⁹⁾ 등과 안¹⁰⁾ 등의 연구는 역대 醫家들의 견해를 폭넓게 다루면서 현대 의학적인 면에서 그 실체를 규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 등은 그 연구대상을 주로 부인과 계통의 서적에 한정하였고, 안 등은 역대 『內經』 注釋書 및 부인과 관련 서적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각 注釋家들의 견해를 '天癸'가 무엇이나?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체에 대한 注釋을 분류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어, '天'과 '癸'의 名義나 '天'과 '癸'의 관계, '天癸'와 '精血'의 관계 등에 대한 『內經』 注釋家들의 견해를 정밀하게 비교 고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밖에도 '天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연구 경향성이다. 부인과 전문서적인 『婦人良方大全』, 『女科經綸』, 『濟陰綱目』, 『女科仙方』 및 현대의 거의 대부분의 부인과 전문서적이 '天癸'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天癸'의 중요성이 여자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김 등의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¹¹⁾

이에 필자는 역대 주요 『內經』 注釋家들의 原典을 중심으로 각 注釋家들의 '天癸'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정리하고 아울러 그들의 '天癸'에 대한 연구 경향성에 대하여도 살펴본바 약간의 견해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民衛生出版社, 중국, 1998년, 7쪽.
- 3) 張介賓 編著,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4년, 61쪽. "如王氏以精血爲天癸, 蓋以經文言女子之血, 男子之精, 皆隨天癸而至故也. 此雖未得其眞, 而其義猶不相遠."
 - 4) 丹波元簡 等編,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84년, 9쪽. "然「陰陽應象大論」調此二者, 王注, '調, 謂順天癸性, 而治身之血氣也.' 知其意亦似與張意略符焉."
 - 5) 張介賓 編著,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4년, 59쪽.
 - 6) 趙有臣, 「天癸新探」, 『上海中醫藥雜誌』, 1987年 第9期, 中國, 42쪽.
 - 7)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북경출판사, 중국, 1999년, 1031- 1032쪽.
 - 8) 김은기 외 2인, 「月經의 開始와 閉止에 關與하는 天癸의 東西醫學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제 17권 제 2호, 통권 제 32호, 1996년, 한국, 55쪽, "宋은 ... 天癸를 난포자극호르몬(FSH)이라고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56쪽, "天癸가 내분비물질로 임신과 월경에 필수적이며, 남녀에 모두 존재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관찰된 내분비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GnRH(황체형성호르몬 유리호르몬)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 9) 앞 책, 48- 56쪽
- 10) 안종은 외 1인, 「歷代醫家說을 중심으로 살펴본 天癸에 관한 문헌연구」, 『東醫生理學會誌』 제 14권 2호, 통권 제 20호, 한국, 1999년, 139- 148쪽.
- 11) 김은기 외 2인, 「月經의 開始와 閉止에 關與하는 天癸의 東西醫學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제 17권 제 2호, 통권 제 32호, 한국, 1996년, 48- 56쪽. 이 논문은 결론에 '天癸'가 남녀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연구의 근거가 되는 문헌자료는 거의 부인과 전문서적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天癸'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天癸'에 대한 역대 『內經』 注釋家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고 대체적인 연구 경향성을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天癸'의 실체가 무엇이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역대 『內經』 注釋家들의 견해가 어떠한였고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2. 자료 선택

본 연구는 『內經』 注釋서 중에서 '天癸'를 중요하게 다루거나 새로운 개념을 수록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부인과 관련 서적은 김 등의 고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¹²⁾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 1) 楊上善 注,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한국, 1991년, 23쪽.
- 2) 王冰 注,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2년.
- 3) 馬蒔 注,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8년.
- 4) 吳崑 注, 張繼有 등 編審,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中醫古籍出版社, 중국, 1988.
- 5) 張介賓 注,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4년.
張介賓 著, 欽定四庫全書 44 『類經圖翼』, 대성출판사, 한국, 1995년.
張介賓 著, 欽定四庫全書 44 『類經附翼』, 대성출판사, 한국, 1995년.
- 6) 張志聰 注,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중국, 1999년.
- 7) 高士宗 注, 于天星 按, 『黃帝內經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중국, 1982년.
- 8) 丹波元簡 等編,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중

국, 1984년, 9쪽.

- 9) 趙有臣, 『上海中醫藥雜誌』, 「再論天癸爲天真之傳誤」, 1989年, 第5期, 中國.
趙有臣. 『上海中醫藥雜誌』, 「天癸新探」, 1987年 第9期, 中國, 42쪽.
- 10)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북경출판사, 중국, 1999년.

3. 연구 방법

먼저 주요 『內經』 注釋家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天'과 '癸'의 名義, '天'과 '癸'의 관계, '天癸'와 '精血'의 관계, '天癸'의 작용 등 주제별로 정리하여, 그 견해의 차이점 및 연구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4. 원문의 句讀 및 인용방법

- 1) 원문은 토를 달지 않고, . . . : ? ! 등의 부호를 사용하여 句讀하였다.
- 2) 본문에는 필요한 부분만 의역을 하여 실거나 내용을 축약하여 실었고, 관련된 내용의 원문은 각주에 실었다.

5. 書名 篇名の 표시

書名 표시에는 『』, 篇名 표시에는 「」를 사용하였다.

III. 본론

1. 역대 주요 『內經』 注釋家들의 견해

1) 楊上善

楊上善은 '天癸'를 '精氣'라 하고 이 '精氣'가 이르면 任脈이 通하고 衝脈이 왕성하여지며, 또한 任脈과 衝脈의 氣血이 모두 적어진 것은 精氣가 다 소진된 것이니 子門이 닫혀서 자궁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였다.¹³⁾ 이러한 楊上善의 견해는 '天癸' 즉 精氣가 衝

12) 앞 책, 52-56쪽.

任脈 활동의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2) 王冰

‘天癸’의 名義에 대하여 王冰은 “癸는 壬癸를 말하는 것으로 北方水의 干名이다.”¹⁴⁾고 하여, ‘天癸’의 ‘天’은 ‘天眞의 氣’로 ‘癸’는 ‘壬癸’ 즉 北方水의 干名으로 보고 있다.

‘天癸’의 의미에 대하여는 “腎氣가 온전하고 盛하게 되면 衝脈과 任脈이 흘러 통하여 經血이 차츰 가득 차게 되어 때에 응하여 나오게 되는데 이때 天眞의 氣가 하강하여 衝脈 任脈과 함께 이 일을 하므로 天癸라 하는 것이다.”¹⁵⁾고 하여, 여자인 경우에는 ‘天癸’가 衝任脈과 더불어 月事에 관여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바로 아래 ‘丈夫八歲’조문에 대한 注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陰陽의 質이 같지 아니하니 天癸에 있어서도 또한 精과 血의 形質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¹⁶⁾라 하였고, “(남자에 있어서) 天癸가 이미 고갈되니 그러므로 精이 줄어든 것이다.”¹⁷⁾고 하여, ‘天癸’를 形質의 측면으로 보면 여자에서는 ‘血’과 관계가 있고, 남자에서는 ‘精’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王冰은 『素問·陰陽應象大論』 “調此二者, 奈何?”조문의 注에서 “調는 天癸의 性を 따라 몸의 血氣 精氣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¹⁸⁾고 하여 ‘天癸’가 性의

의미가 있고 精血은 氣의 의미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앞에서 ‘天癸’가 形質적인 면으로는 남자의 精, 여자의 血과 관계가 있다고 한 것과 결부시키면 ‘天癸’는 性이고, 그것이 形質적인 측면에서는 남자의 精, 여자의 血과 관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王冰은 ‘天癸’를 性으로 보고 그 形質로의 발현은 남자의 精, 여자의 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3) 馬蒔

馬蒔는 ‘天癸’를 여자에서는 陰精, 남자에서는 陽精이라 하고, 先天의 氣가 쌓여 극에 이르러 陰精 즉 ‘天癸’가 발생한다고 하였다.¹⁹⁾ 이러한 馬蒔의 견해는 ‘天癸’를 남녀의 ‘交媾之精’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발생은 ‘先天之氣’가 쌓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男女의 精을 모두 ‘天癸’라 할 수 있는데 王冰이 ‘天癸’를 월경으로 이해하였다고 인식하여 王冰의 注를 잘못되었다고 하였다.²⁰⁾ 즉 馬蒔는 ‘天癸’를 회임과 직접 연관이 있는 男女 交媾之精으로 보고 임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血로써 天癸를 이해한 王冰의 견해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王冰이 “天眞의 氣가 하강하여 衝任脈과 더불어 月事가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天癸’라 한다.”고 하여 마치 ‘天癸’를 月事로 본 듯하지만 다른 부분의 주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天癸’를 性으로 보고 그 形質로의 발현을 男精 女血로 보았으므로 馬蒔가 王冰에 대하여 비판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다만 馬蒔가 王冰의 견해를 논박한 것은 王冰의 주가 ‘天癸’를 여자에게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질 염려가

13) 楊上善 撰,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한국, 1991년, 23쪽. “天癸, 精氣也. 任衝脈起於胞中下極者也. 今天癸至, 故任脈通也. 伏衝之脈起於氣街, 又天癸至, 故衝脈盛也. 二脈并營子胞, 故月事來以有子也.” “任衝二脈氣血俱少, 精氣盡, 子門閉, 子宮壞, 故無子.” (앞의 ‘任衝二脈氣血俱少, 精氣盡’은 ‘衝任脈의 氣血이 적어지면, 精氣가 다하여’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한 ‘衝任二脈의 氣血이 모두 적어진 것은 精氣가 소진된 것이니’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앞에서 衝任脈의 流通에 ‘天癸’ 즉 精氣가 이르는 것이 선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도 ‘衝任脈의 氣血이 모두 적어진 것은 精氣가 소진된 것이니’로 해석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 후자의 해석을 따랐다.)

14) 王冰 撰,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2년, 9쪽. “癸謂壬癸, 北方水干名也.”

15) 앞 책, 9쪽. “腎氣全盛, 衝任流通, 經血漸盈, 應時而下. 天眞之氣降, 與之從事, 故云天癸也.”

16) 앞 책, 11쪽. “男女有陰陽之質不同, 天癸則精血之形亦異”

17) 앞 책, 13쪽. “天癸已竭, 故精少也.”

18) 앞 책, 94쪽. “調謂順天癸性, 而治身之血氣精氣也.” 여기서의 性은 理를 말한다.

19) 馬蒔 撰,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8년, 6-7쪽. “天癸者, 陰精也.”, “天癸者, 陽精也.”, “蓋腎屬水, 癸亦屬水, 由先天之氣蓄極而生, 故謂陰精爲天癸也.”

20) 앞 책, 7쪽. “按王冰謂天癸爲月事者非. 蓋男女之精, 皆可以天癸稱, 今王注以女子之天癸爲血, 則男子之天癸亦爲血耶? 『易』曰: 男女媾精, 萬物化生. 故交媾之時, 各有其精, 而行經之際, 方有其血, 未聞交媾之時, 可以血言.”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한 점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馬蒞는 남자가 16세, 여자가 14세 이전에 精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로 요절한다고 보았다.²¹⁾

4) 吳崑

吳崑은 '癸'를 腎水라 하고 이것이 形質적으로는 남자의 精, 여자의 血이 되는데 天真이 이를 통하여 하강하는 것이므로 그 이름을 '天癸'라 한다고 하였다.²²⁾ 즉 그는 王冰의 「上古天真論」注를 부연 설명하여 天真이 남자의 精, 여자의 血을 통하여 하강하는 것을 '天癸'로 보았다.

5) 張介賓

張介賓은 '天癸'를 '天一之氣'라 하였다.²³⁾ 그는 "天一이 水를 생하는데 地六에 의하여 완성되며, 地二는 火를 생하는데 天七에 의하여 완성된다."²⁴⁾고 하여, '天癸'의 '天'의 의미를 '天一生水'의 '天一'의 개념으로 보았다. 여기서의 '天'은 1, 3, 5, 7, 9 등 홀수를 주관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²⁵⁾, 구체적인 '天一'의 의미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天一은 天의 一이다. 一은 陽이다. 一이 없으면 六에 그치고 말뿐이다. 그러므로 水가 만물을 생하는 것은 이 一에 힘입는 것이다. 水가 氣로 변화함도 또한 이 一에 힘입는다. 土가 春夏의 水를 얻어 능히 생하고

능히 長하는 것은 이 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土가 秋冬의 水를 얻는데도 생하지 못하고 長하지 못하는 것은 이 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게 하는 것은 水가 또한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면, 水가 만물을 생하는 것이나 水가 운행하는 것 그 어떤 것도 陽氣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水 가운데에 있는 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水가 바로 陽이 되는 것은 아니다."²⁶⁾

즉 그는 '天一'을 水 가운데의 一, 즉 陽이 있어 水가 만물을 생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한다고 하였고, 또 "예를 들면 草木이 아직 영글지 못할 때 혹은 태어나 알이 아직 생하기 전에 먼저 水를 말미암고, 그런 다음에 形이 이루어지니, 水는 만물의 만들어질 때에 먼저 생긴다. 그러므로 水의 數는 一인 것이다. ... 水는 子의 위치에서 왕성한데 子는 陽이 생하는 처음이니 一은 陽이 일어나는 數이다. 그러므로 水는 一이 되는 것이다."²⁷⁾라고 하여 一을 子의 위치에 배속하였고 구체적으로는 "一乃正北坎位"²⁸⁾라 하였으니, 張介賓은 天一을 坎卦(☵)의 가운데 陽爻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癸'에 대하여 '癸'는 天干名으로 天干은 地支에 대하여 陽이고, 陽은 氣를 의미하며, 또한 '癸'는 '壬'의 짝으로, '壬'이 陽干이라면, '癸'는 陰干이므로, 결국 '天癸'는 天一의 陰氣가 된다고 하였다.²⁹⁾ 특히 그는 '天癸'와 '精血'의 관계에 있어서 "天癸在先, 而後精血繼之."³⁰⁾고 하여, '天癸'가 먼저 있고 나서, '男精女

21) 앞 책, 7쪽. "或有男女二七二八而精至者, 皆斷喪致然, 徒取天耳." (注: '斷'자는 원래 '石斤(붙어 있는 한 글자)'로 되어 있었는데, 의미로 보아 '斷喪'(주색에 빠져 몸을 해치다)로 고쳤다.)

22) 吳崑 撰, 張繼有 등 編審,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中醫古籍出版社, 중국, 1988, 3쪽. "癸, 腎水也. 是爲男精女血, 天真所降也, 故曰天癸.", 4쪽 "男女陰陽之質不同, 則精血之形亦異"

23) 張介賓 編著,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4년, 59쪽. "天癸者, 天一之氣也."

24) 張介賓 編著,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4년, 60쪽. "有子之道, 必陰陽合而後胎孕成, 故天一生水而成于地之六, 地二生火而成于天之七."

25) 張介賓 著, 欽定四庫全書 44 『類經圖翼』 「五行生成數解」, 대성출판사, 한국, 1995년, "天一生水, 地六成之; 地二生火, 天七成之; 天三生木, 地八成之; 地四生金, 天九成之; 天五生土, 地十成之."

26) 앞 책, 『類經附翼·求正錄』 「大寶論」, 776-997쪽. "夫天一者, 天一也. 一即陽也, 無一則止于六耳. 故水之生物者, 賴此一也. 水之化氣者, 亦賴此一也. 不觀乎春夏之水, 土得之而能生能長者, 非有此一乎? 秋冬之水, 土得之而不生不長者, 非無此一乎? 不惟不生而且爲凍, 是水亦死矣. 可見水之所以生, 水之所以行, 孰非陽氣所主, 此水中有陽耳, 非水即爲陽也."

27) 앞 책, 『類經圖翼五行生成數解』, 776-695쪽. "如草木未實, 胎卵未生, 莫不先由于水而後成形, 是水爲萬物之先, 故水數一. 水旺于子, 子者陽生之初, 一者陽起之數, 故水曰一."

28) 앞 책, 776-750쪽.

29) 앞 책, 59쪽. "夫癸者, 天之水干名也. 干者, 支之陽, 陽所以言氣. 癸者, 壬之偶, 偶所以言陰, 故天癸者, 言天一之陰氣耳. 氣化爲水, 因名天癸."

30) 앞 책, 59쪽.

血'이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天癸'가 인체에서 무엇이고,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 이는 元陰이 되는데 元氣라고도 한다.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는 이 氣가 부모에 쌓여 있으니 이는 先天의 元氣이고, 태어나서는 이 氣가 내 몸으로 化하니 이는 後天의 元氣이다. 다만 氣가 처음 생할 때에는 眞陰이 매우 미약하다가 가득차게 되면 精血이 이에 왕성해지니 그러므로 여자는 14세, 남자는 16세가 된 다음에 天癸가 이르는 것이다. 天癸가 이미 이르게 되면 여자에게는 월경이 때에 맞추어 나오게 되고 남자에게는 精氣가 넘치게 되니 대개 반드시 陰氣가 충족한 이후에 精血로 化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陰氣와 陰精은 구름과 비로 비유할 수 있다. 구름은 陰精이 생기기 전의 氣로 비유할 수 있고 비는 陰氣가 精으로 변화된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구름과 안개가 퍼지지 않고서 비와 눈이 오는 경우가 없으며, 또한 구름과 안개가 질지 않은데도 비와 눈이 충분하게 오는 경우가 없다. 그런즉 精은 氣에서 생기고 天癸는 그 바로 天一의 氣라는 것을 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³¹⁾

이러한 張介賓의 注釋을 살펴보면 그는 '天癸'를 形質인 精血이 만들어지기 전의 元陰 혹은 元氣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張志聰

張志聰은 陽 혼자서는 발생작용을 할 수 없고 陰 혼자서는 만물을 기르는 작용을 할 수 없으므로, 陰 가운데에 陽이 있고 陽 가운데에 陰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陽인 天乙³²⁾은 陰인 水를 생하고, 陰인 地二는 陽인 火를 생하며 陽인 離卦는 여자가 되고 陰인 坎卦는

남자가 된다고 하고, '天癸'는 바로 天乙이 생한 바의 癸水라 하였으니³³⁾ '天癸'를 陽인 '天一'이 陰인 '癸水'를 생하는 뜻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癸水'가 腎에 저장된다고 하였다.³⁴⁾ 즉 張志聰은 '天癸'를 陽이 생한 陰으로 본 것이다.

그는 또한 “天癸는 天乙이 생한 精으로 남자는 '天癸'가 이르러 精氣가 넘쳐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腎精이 붉게 변화하여 血이 되어 衝任脈에 가득 차게 되면 수염이 자라게 된다. 여자에 있어서는 天癸가 이르고 나서 월경이 때에 맞추어 나오게 되니 그러므로 精血을 모두 天癸라 한다.”³⁵⁾라고 하여, '天癸'를 구체적으로 精血이라고 하였다.

'天癸'의 작용에 대하여 그는 “남자의 '天癸'가 衝任脈에 가득 차 넘치면, 피부를 채우고 肉을 덥히며 수염을 나게 하고, 여자의 '天癸'가 衝任脈에 가득 차 넘치면 피부를 채우고 肉을 덥히며 월경을 행하게 하여 자식을 회임하게 한다.”³⁶⁾고 하였다. '天癸'의 작용에 대한 張志聰의 이러한 견해는 『靈樞·五音五味』에 나오는 문장³⁷⁾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남자의 수염과 여자의

31) 앞 책, 59쪽. “其在人身，是謂元陰，亦曰元氣。人之未生，則此氣蘊於父母，是爲先天之元氣；人之既生，則此氣化於吾身，是爲後天之元氣。第氣之初生，眞陰甚微，及其既盛，精血乃王，故女必二七，男必二八而後天癸至。天癸既至，在女子則月事以時下，在男子則精氣溢瀉，蓋必陰氣足而後精血化耳。陰氣陰精，譬之雲雨，雲者陰精之氣也，雨者陰氣之精也，未有雲霧不布而雨雪至者，亦未有雲霧不濃而雨雪足者，然則精生於氣，而天癸者，其即天一之氣乎，可無疑矣。”

32) 天乙은 天一과 같은 뜻임. (동아출판사, 『東亞漢韓大辭典』, 433쪽)

33)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중국, 1999년. 8쪽. “按陰陽之道，孤陽不生，孤陰不長，陰中有陽，陽中有陰，是以天乙生水，地二生火，離爲女，坎爲男，皆陰陽互換之道，…，天癸，天乙所生之癸水也.”

34) 앞 책, 9쪽. “癸水藏于腎.”

35) 앞 책, 9쪽. “故曰天癸者，天乙所生之精也。是以男子天癸至而精氣溢瀉，腎之精，化赤爲血，溢于衝任，生鬚鬣。女子天癸至而月事以時下，故精血皆謂之天癸也.”

36) 앞 책, 9쪽. “是則男子之天癸溢于衝任，充膚熱肉而生鬚鬣。女子之天癸溢于衝任，充膚熱肉，爲經水下行而妊子也.”

37) 앞 책, 568쪽. 이 문장에 대하여, 張志聰은 “이 문장은 피부를 채우고 肉을 덥히며, 皮毛로 스며들어가는 血氣도 또한 胞中에서 일어나 衝脈 任脈을 따라 운행하다가 脈中에서 흘러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此復論充膚熱肉澹滲皮毛之血氣，又起于胞中，從衝脈任脈而散于脈中者也.)”라 하였고, 또한 위 문장에서는 後天 水穀의 精이 中焦를 따라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先天的으로 저장되어 있는 精氣가 下焦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上章論胃腑所生之血氣，出于胃之大絡，注臟腑之經隧，而外滲于皮膚，此後天水穀之精，從中焦而出也。此言胞中之血氣，從衝任而行于經脈之外內，乃先天所藏之精氣，從下焦而上也。)고 하여, 선천적인 精氣와 관계를 시키고는 있으나, 『上古天真論』에서와 같이 '天癸'의 작용이라는 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월경을 대비시킴으로써 그 생리적인 특징을 '天癸'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天癸'와 衝任脈의 작용이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서도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天癸'의 작용이 어떻게 유지되는가?하는 점에 대하여 張志聰은 아래 "腎者, 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조문의 注釋에서 先天의 癸水가 後天의 津液에 의지하여 유지된다.³⁸⁾고 하였고 또한 "腎이 五臟六腑의 精을 받아서 저장한다는 것은 後天水穀의 精을 받는다는 것이다."³⁹⁾고 하여 '天癸'의 작용이 後天津液과 後天水穀의 영양에 의지하여 유지된다고 하였다.

7) 高士宗

高士宗은 "天癸'는 남자의 精과 여자의 血로서 '天一'이 생한 바의 癸水이다."⁴⁰⁾라고 하여, 張志聰의 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용어만 '天乙'을 '天一'로 바꾸었다.

또한 아래 "腎者, 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조문의 注釋에서 "先天癸水是 後天水穀에 힘입어 생한다. 그러므로 腎이 水를 주관하는 것이다. 水는 癸水이다. 즉 五藏六府에 있는 水穀이 변화된 精을 받아들여 腎이 저장하는 것이다. 대저 六府의 精은 五藏으로 귀속되고 五藏의 精은 다시 腎으로 귀속된다."⁴¹⁾고 하여, 先天癸수가 後天水穀의 영양에 힘입어 그 활동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張志聰의 견해를 한층 자세하게 부연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 丹波元簡

丹波元簡은 '天癸'의 의미에 대하여 張介賓의 설을 따르고 있다.⁴²⁾ 그리고 王冰이 '天癸'에 대하여 주를

단 것에 대하여 「上古天真論」의 注釋만을 보면 흡사 월경을 가리키는 것 같아 馬蒔가 이를 비판하였지만, 「陰陽應象大論」에 서술된 그의 주를 보면 王冰이 주를 단 것 또한 張介賓의 주와 대략 부합한다고 하여 王冰의 注와 張介賓의 注가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⁴³⁾

즉 王冰의 注를 종합하여 보면 王冰은 天癸를 性으로 보고 精血을 그 性이 발현되는 形質로 보았고, 張介賓은 天癸를 氣로 보고 精血을 그 氣가 쌓여 이루어진 形質로 보았으니 그 개념상의 先後關係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는 張志聰과 高士宗이 '天癸'를 '天一所生之癸水'이라 한 것은 모두 張介賓의 注에 근본한 것이고 하여⁴⁴⁾ 마치 張志聰과 高士宗이 張介賓 注를 따르고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적이다. '天一'에서 天의 의미를 유추한 것은 張介賓의 注와 같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張志聰과 高士宗은 '天癸'를 '天一所生之癸水'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男精女血이 바로 '天癸'라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形質 이전의 氣의 차원에서 '天癸'를 이해하였던 張介賓과는 그 견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9) 趙有臣

趙有臣은 "天癸는 '天真'의 誤字이고 '天真'이란 頭腦에서 생산되는 일종의 眞氣이며 이는 '腎陰'과 灌注하면서 인체생명력의 원천이 된다."⁴⁵⁾고 하였고, 이렇게 頭腦와 腎陰을 上下로 灌注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心腎相交'로 표현된다고 하였다.⁴⁶⁾

즉 그는 '天癸'라는 용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 하였던 이전의 注釋家들과는 달리, '天癸'자체를 '天真'의 착간이라고 하는 때

38) 앞 책, 9쪽. "此復申明先天之癸水, 又籍後天之津液所資益也."

39) 앞 책, 9쪽.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者, 受後天水穀之精也."

40) 高士宗 著, 于天星 按, 『黃帝內經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중국, 1982년, 3쪽. "天癸者, 男精女血, 天一所生之癸水也."

41) 앞 책, 5쪽. "先天癸水, 籍後天水穀以生, 故腎者主水. 水, 癸水也. 受五藏六府水穀所化之精, 而藏之于腎. 夫六府之精, 歸于五藏, 五藏之精, 復歸于腎."

42) 丹波元簡 等編,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84년, 9쪽. "當確張說耳."

43) 앞 책, 9쪽. "又按王注, '任(王의 誤字임)衝流通, 經血漸盈, 應時而下, 天真之氣降, 與之從事, 故云天癸也.' 此似指爲月事, 馬氏因譏之. 然「陰陽應象大論」調此二者, 王注, '調, 謂順天癸性, 而治身之血氣也.' 知其意亦似與張意略符焉."

44) 앞 책, 9쪽. "志聰高氏并云: 天癸, 天一所生之癸水也, 乃全本于張注."

45) 趙有臣, 『天癸新探』, 『上海中醫藥雜誌』, 1987年第9期, 中國, 42쪽.

46) 趙有臣, 『再論天癸爲天真之傳誤』, 『上海中醫藥雜誌』, 1989年, 第5期, 中國, 44쪽.

우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전 학자들의 注釋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가하였는데 특히 張介賓이 “天癸者，天一之氣也”라 하고, 또 “氣化爲水，因名天癸.”라 한 것에 대하여 “張介賓이 ‘氣化爲水，因名天癸(氣가 변화하여 水로 된 것 때문에 天癸라 명명한 것이다)’라 하였으니 氣가 水로 변화되기 전에는 天癸라고 할 수 없는데 앞에서는 ‘天癸者，天一之氣’라 하고 있으니 상호 모순이 된다.”⁴⁷⁾고 하였다. 즉 張介賓이 氣가 변화하여 水가 되기 때문에 ‘天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하고 또 앞에서는 ‘天癸’를 ‘氣’라 하였으니 張介賓의 주장이 ‘天癸’를 ‘水’로 본 것인지 ‘氣’로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張介賓은 ‘天癸’의 ‘天’은 ‘天一’의 의미로 보았고 ‘癸’는 ‘陰氣’로 보았는데, 이 ‘陰氣’를 설명하기 위하여 ‘氣化爲水’라는 말을 한 것이다. 즉 그는 ‘氣化爲水’의 ‘水’도 氣로 본 것이다. 그는 이 ‘水’를 精이라고 고도하고 元陰 元氣라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는 ‘氣化爲水’의 과정을 先天之元氣(元陰)가 부모에 쌓여 있다가 내 몸이 형성된 다음에는 後天之元氣(元陰)가 되고 이것이 남자 16세 여자 14세에 이르면 차츰 성하여지는데 이것을 天癸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⁸⁾ 그리고 ‘天癸’에 이 후에 여자의 ‘月事以時行’과男子的 ‘精氣溢瀉’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니 張介賓이 말한 ‘氣化爲水’의 ‘水’는 ‘月事以時行’이나 ‘精氣溢瀉’ 전단계의 陰氣를 말하는 것이지 여자의 月事나 남자의 精氣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張介賓의 注에서 모순은 없는 것이다.

비록 그가 ‘天癸’를 부정하고 ‘天真’이 바른 용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王冰이 ‘天真之氣’가 강림하여 衝任脈과 더불어 월경이 나오게 하는 일에 관여한다고 본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天癸’가 되었던 ‘天真’이 되었던 생명력의 원천⁴⁹⁾이라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10) 『黃帝內經研究大成』

최근 출판된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天’을 先天이라 하고, ‘癸’를 天干의 하나로 水에 속한다고 하여 ‘天癸’는 바로 선천적으로 품부받은 精水라 하였다.⁵⁰⁾ 그리고 精은 氣에서 발생하므로 ‘天癸’는 즉 先天精氣의 한 종류라고 하였다.⁵¹⁾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張介賓, 馬蒔의 注를 인용하고 있는데 馬蒔의 注에서는 ‘天’의 선천적인 의미를 張介賓의 注에서는 ‘癸水’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張介賓의 注釋을 취하면서도 결국 ‘天癸’를 腎臟에서 발생되어 저장된⁵²⁾ 일종의, 생식기능을 촉진하는 물질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⁵³⁾ 여기서의 물질의 의미가 張介賓이 말한 ‘形’ 이전의 ‘氣’의 의미와 어떻게 부합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天癸’의 작용에 대하여는 先天精氣가 腎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 腎藏精氣의 盛衰에 의하여 영향을 받다고 설명하고, 腎이 五臟六腑의 精을 받아 저장하고 있으므로 腎 뿐만 아니라 他 臟腑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衝任督帶脈 그 중에서도 특히 衝任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⁵⁴⁾

‘天癸’의 生理作用에 대하여는 생식기능의 촉진 뿐만 아니라 제 2차 성징의 발현 및 형태의 성장과 쇠퇴에 관여한다.⁵⁵⁾고 하였고 그 작용의 발휘는 반드시 腎氣가 쌓인 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그 고갈도 역시 腎氣에 앞서 고갈하는 것으로 보았다.⁵⁶⁾

특히 이 책에서는 ‘天癸’와 관련된 3가지 논점에 대

47) 앞 책, 42쪽.

48) 張介賓 編著,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4년, 59쪽. “故天癸者，言天一之陰氣耳。氣化爲水，因名天癸。此先聖命名之精而諸賢所未察者。其在人身，是謂元陰，亦曰元氣。人之未生，則此氣蘊於父母，是爲先天之元氣；人之既生，則此氣化於吾身，是爲後天之元氣。第氣之初生，眞陰甚微，及其既盛，精血乃王，故女必二七，男必二八而後天癸至。天癸既至，在女子則月事以時下，在男子則精氣溢瀉，蓋必陰氣足而後精血化耳。陰氣陰精，譬之雲雨，雲者陰精之氣也，雨者陰氣之精也，未有雲霧不布而雨雪至者，亦未有雲霧不濃而雨雪足者，然則精生於氣，而天癸者，其即天一之氣乎，可無疑矣。”

49) 趙有臣, 「天癸新探」, 『上海中醫藥雜誌』, 1987年, 第9期, 中國, 42쪽.

50)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북경출판사, 中國, 1999년, 1030쪽.

51) 앞 책, 1030쪽.

52) 앞 책, 1032쪽.

53) 앞 책, 1031쪽.

54) 앞 책, 1030- 1031쪽.

55) 앞 책, 1030- 1031쪽.

56) 앞 책, 1031쪽.

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天癸'가 물질이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 57) 원문 중의 '有子' '無子'가 이미 기능을 표시하는 말이므로 기능만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58)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현대적인 용어의 개념으로 물질과 기능이라는 측면을 대립하여 놓고 논점을 끌어낸 것으로 사실 한의학적 용어에는 물질이나 기능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天癸'가 물질만을 지칭하거나 기능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天癸'가 무엇이나는 것에 대하여 王冰이 男精女血로 보았다고 하고, 張介賓의 '天癸'는 물질이 될 수 없고 '氣'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王冰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며 또한 張介賓이 '天癸'를 '腎氣'라고注를 단 것에 대하여도 '天癸'가 '腎氣'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원문에 분명히 '腎氣盛' '天癸至' 등으로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부정하고 있다. 59) 생각건대, 張介賓의 이注는 원문 '三七腎氣平均'에만 있는 것으로 21세에 腎氣가 알차게 골고루 온몸에 퍼지게 되는 것은, 14세에 '天癸'가 '至'한 다음에 있게 되는 현상이니 이때의 '腎氣'는 바로 '天癸'로 볼 수 있다는注를 단 것에 불과하다. 이를 마치 張介賓이 글 전체에서 '天癸'가 바로 '腎氣'라고 주장한 것으로 본 것은 다소 지나친 점이 있다.

또한 '天癸'가 腎臟에서 생성된 물질인가 아니면 腎臟에 저장된 물질인가에 대하여 '天癸'가 先天精氣이고, 腎이 선천을 주관하기 때문에 腎에서 생성하여 腎에서 저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60)

셋째, '天癸至'에서 '至'의 의미는 '이르다'와 '가득 차다'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天癸'는 선천적으로 품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자 14세 남자 16세 이전에도 있지만 미약하게 있는 것이고 그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가득 차게 된다고 보아 '이르다'의 뜻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61) 또한 '天癸至'와 맺구가 되는

'天癸竭'에서 '竭'이 고갈의 뜻이므로, '至'를 이와 맺구가 되는 '淵'의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62)

이상의 내용 중에서, 새로운 의견을 개진한 주요 注釋家들의 注釋을 중심으로 '天癸'의 의미를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天癸'의 意味

1) '天'과 '癸'의 名義

王冰은 '天癸'의 '天'자에 대하여 '天真之氣'라 보았고, 馬蒔는 '先天之氣'라 하였으며 張介賓 張志聰 高士宗은 '天一', 혹은 '天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天真之氣'라는 것은 古代 道家에서 상용되던 용어로 하늘이 부여해준 꾸미지 않은 상태의 소박한 氣를 말하는 것이다. 63) 王冰은 '天癸'를 形質로 분화되지 않은 性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天'의 의미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꾸미지 않은 상태로의 순수한 氣로 본 것이다.

馬蒔는 '天癸'를 精氣라 하고 이 精氣 즉 '癸水'는 '先天之氣'가 축적되어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니 '天'을 선천적인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王冰과 馬蒔는 '天'을 선천적인 의미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張介賓 高士宗은 '天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張志聰은 '天一'과 같은 뜻으로 '天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張介賓은 '天一生水'에서 '天一'의 개념을 취하였는데 이는 水 中에 있는 一陽으로서 坎卦(☵)의 가운데 陽爻(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張志聰은 張介賓과 같이 '天一'의 개념을 취하여 '天癸'라는 용어를 '陽中有陰'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는 陰 가운데에 陽이 있고, 陽 가운데에 陰이 있으니 그러므로 陽인 '天乙'은 陰인 水를 生하고, 陰인

57) 앞 책, 1031쪽. (『吉林中醫藥』「天癸釋義之我見」, 1989년, 第6期.에 나오는 의견을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 재인용함.)

58) 앞 책, 1032쪽.

59) 앞 책, 1032쪽.

60) 앞 책, 1032쪽.

61) 앞 책, 1032쪽.

62) 앞 책, 1032쪽.

63) 胡天雄 著, 『素問補識』, 中國中醫藥出版社, 중국, 1991, 1쪽.

‘地二’는 陽인 火를 生하며 陽인 離卦는 여자가 되고, 陰인 坎卦는 남자가 된다고 하고, ‘天癸’는 바로 ‘天乙’이 生한 바의 癸水라 하였으니⁶⁴⁾ 張志聰은 ‘天一’을 陰인 癸水를 生하는 陽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점은 張介賓이 天一을 水속의 一陽으로 본 것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그 차이는 張志聰이 ‘天癸’를 精血이라는 구체적인 形質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고 반면에 張介賓은 ‘天癸’를 구체적인 形質의 이전 단계인 ‘氣’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張介賓은 만물이 처음 생길 때에는 水부터 시작되는데 이 水의 속에 一陽이 있어서 그 一陽이 生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水를 아직 구체적인 形質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氣’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張志聰은 ‘天一’인 陽이 陰인 癸水, 즉 精血을 生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癸水’라는 陰氣 속에 ‘天一’이라는 陽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張介賓의 견해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다.

‘天癸’의 ‘癸’에 대하여 王冰은 ‘北方水의 干名’이라 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張介賓은 天干은 地支에 대하여 陽이고 陽은 氣를 의미하며 또한 ‘癸’는 ‘壬’의 짝으로 ‘壬’이 陽干이라면 ‘癸’는 陰干이므로 결국 ‘天癸’는 ‘天一’의 陰氣가 된다고 하여 ‘癸’字가 가지는 ‘陰氣’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에 張志聰은 ‘癸’를 陽인 ‘天一’이 生한 ‘癸水’ 즉 陰으로 보고 구체적으로는 精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張介賓이 ‘天癸’를 ‘氣’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역대 주요 『內經』注釋家들의 ‘天癸’의 名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표2.)

표 1. ‘天’의 名義에 대한 注釋家들의 견해

注釋家	‘天’의 名義
王冰, 馬蒔	선천적
張志聰	陰을 만드는 陽
張介賓	水속에 있는 ‘天一’ 즉 ‘坎’卦의 가운데 陽爻

표 2. ‘癸’의 名義에 대한 注釋家들의 견해

注釋家	‘癸’의 名義
張介賓	‘形’의 前단계인 ‘陰氣’
馬蒔, 張志聰	구체적인 形質인 ‘精’ 혹은 ‘精血’

2) ‘天’과 ‘癸’의 관계

‘天’과 ‘癸’의 관계에 대하여 馬蒔는 ‘先天之氣’가 축적되어 ‘癸水’ 즉 精血을 生성한다고 하였으니 ‘天’이 축적되어 ‘癸’가 된다고 본 것이다.

張志聰은 天인 陽이 陰인 陰을 生성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天’이 주체가 되어 ‘癸’를 生성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馬蒔와 張介賓의 주를 인용하면서, ‘天癸’를 ‘先天에서 품부받은 精水’라 하였으니⁶⁵⁾ ‘天’에서 품부받은 ‘癸’의 의미로 본 것이다.

이상의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研究大成』의 견해는 ‘天’이 쌓여 ‘癸’가 되느냐? 혹은 ‘天’이 生성의 주체가 되어 ‘癸’가 만들어지느냐? 혹은 ‘天’에서 품부받은 ‘癸’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天’을 ‘癸’와 분리하여 ‘天’에서 ‘癸’가 生성된 것으로 보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張介賓은 ‘癸水’를 만물이 生성되는 처음의 陰氣로 보고, 天一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陽이라 하였으니 ‘天一’이 내재된 ‘癸水’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각 注釋家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표3.)

표 3. ‘天’과 ‘癸’의 관계에 대한 注釋家들의 견해

注釋家	‘天’과 ‘癸’의 관계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研究大成	‘天’에서 ‘癸’를 生성함.
張介賓	‘天’이 내재된 ‘癸’

3) ‘天癸’와 精血의 관계

‘天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는 역대로 많은 『內經』注家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역대 주요 『內經』注釋家의 견해는 그것이 구체적인 形質 즉 精이나 血 이전 단계인

64)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중국, 8쪽. “按陰陽之道, 孤陽不生, 孤陰不長, 陰中有陽, 陽中有陰, 是以天乙生水, 地二生火, 離爲女, 坎爲男, 皆陰陽互換之道, …, 天癸, 天一所生之癸水也.”

65) 앞 책, 1030쪽.

‘氣’의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形質 즉 精이나 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楊上善은 ‘天癸’를 精氣로 보았는데 이 精氣는 衝任脈을 흐르게 하는 역할도 하며 또한 衝任脈의 氣血이 감소하는 것도 이 精氣의 소진 때문으로 보고 있으니 ‘天癸’를 衝任脈 활동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形質이전의 단계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王冰과 張介賓은 ‘天癸’가 남녀의 精血을 생성하는 일종의 전 단계로서 보았다. 물론 王冰은 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張介賓은 ‘氣’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性’과 ‘氣’라는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王冰도 ‘天癸’라는 性이 ‘天真之氣’을 통하여 발현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그 구체적인 작용의 측면에서는 張介賓의 注釋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馬蒔는 ‘天癸’를 임신을 시키는 구체적인 물질로 보고 精이라 하였다. 張志聰은 馬蒔와 같이 ‘天癸’를 구체적인 물질로 보았으나 精이 血로 변화된다고 하여, 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張志聰은 ‘天癸’의 의미를 임신을 시키는 구체적인 물질에 국한시키지 않고 남녀의 생리현상에 전반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물질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4.)

표 4. ‘天癸’와 ‘精血’의 관계에 대한 注釋家들의 견해

注釋家	‘天癸’와 ‘精血’의 관계
楊上善, 王冰, 張介賓	구체적인 물질이 이루어지기 전단계
馬蒔, 張志聰	임신과 관련이 있는 精, 혹은 남녀 생리현상과 관계가 있는 精血

4) ‘天癸’의 작용

楊上善은 ‘天癸’가 衝任脈의 流通에 영향을 끼치고 衝任脈은 또한 자궁을 영양하여 월경이 나오게 하며 임신을 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衝任脈의 氣血이 모두 적어지면 ‘天癸’가 소진되어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楊上善은 ‘天癸’가 衝任脈의 流通에 영향을

끼치면서도 衝任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으며 결국 월경이나 임신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王冰은 여자인 경우 자식을 낳는 때에는 衝脈과 任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天真之氣’가 衝任脈과 더불어 월경에 관계한다고 보았으며, 남자인 경우에는 “天癸가 이미 고갈되었으니 그러므로 精이 줄어든 것이다.”⁶⁶⁾고 하여 精의 生成과 소멸에 깊이 관여한다고 인식하였다.

馬蒔는 ‘天癸’의 작용이 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에 대하여 좋지 않은 징후로 보고 일찍 죽는다고 하였다.

張志聰은 ‘天癸’가 남녀 모두 피부를 충실하게 하고 肉을 덥히는 작용을 하는데 남자에 있어서는 수염을 나게 하고, 여자에 있어서는 월경을 나오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天癸’의 작용을 피부를 충실하게 하고 肉을 덥히는 공통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남녀의 전체적인 생리적인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張志聰은 또한 腎이 五臟六腑의 精을 저장하여 온몸의 水를 주관하므로 ‘天癸’의 작용이 ‘後天津液’과 ‘後天水穀之精’에 의하여 유지된다고 하였다.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天癸’의 작용을 생식기능의 촉진, 2차 성징의 발현, 형태의 성장과 노쇠 등 크게 3가지로 제시하고 그 작용에는 腎 및 타 장부, 衝任督帶脈 등이 모두 관여한다고 하였다.

위 注釋家들의 견해에서 특이한 점은 ‘天癸’와 衝任脈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楊上善은 天癸가 衝任脈을 유통시키는 데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張志聰은 天癸(精血)가 衝任脈에 흐르는 것으로 보아 ‘天癸’와 衝任脈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王冰은 ‘天癸’(天真之氣)가 衝任脈과 더불어 월경에 관여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5.)

표 5. 각 注釋家들의 ‘天癸’의 작용에 대한 견해

66) 王冰 撰,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中國, 1992년, 13쪽. “天癸已竭, 故精少也.”

주석가	天癸의 작용
楊上善	여자의 衝任脈의 활동, 그리고 월경 및 임신, 남자의 精의 생성과 소멸 등에 관계한다.
王冰	여자인 경우 '天眞之氣'가 衝任脈과 더불어 月事에 관여하고, 남자인 경우 精의 생성과 소멸에 관여한다
馬蒔	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전에 精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로 일찍죽는다
張志聰	'充膚熱肉'의 남녀 공통적인 작용과 남자의 수염, 여자의 월경의 性的 차이에 따른 생리적인 현상이 모두 '天癸'의 작용이며, 그 활동의 지속에는 '後天津液'과 '後天水穀之精'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黃帝內經研究大成	생식기능의 촉진, 2차 성징의 발현, 형체의 성장과 노쇠 등과 관련있으며, 腎 및 타 장부, 衝任督帶脈 등이 모두 이에 관여한다

注釋家	견해
楊上善	天癸(精氣) → 衝任脈流通 → 月事以時下 → 有子
王冰	腎氣全盛 → 衝任脈 流通, 天眞之氣降 → 女: 月事以時下, 男: 精氣溢寫 → 有子
馬蒔	先天之氣 → 天癸(精) → 精血兼盛(月事以時下, 精氣溢寫) → 有子
張介賓	天癸(氣) → 男精, 女血(形) → 有子
張志聰	天癸溢于衝任脈 → 여자 經水下行, 남자 精氣滿溢 → 有子

III. 考察

'天癸'의 의미에 대한 『內經』 注家들의 견해는 주로 '天癸'를 精血, 혹은 精血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로 보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素問上古天真論』의 원문과 관계가 있다.

즉 『素問上古天真論』 원문에는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二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寫, 陰陽和, 故能有子”고 하여 여자인 경우에는 月事, 남자인 경우에는 精氣를 '有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注家들의 注도 '天癸'가 '月事'나 '精氣'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각 注釋家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6. '天癸'와 '月事' 및 '精氣'의 관계에 대한 注釋家들의 견해

이러한 각 注家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天癸'를 精血이 형성되기 전의 단계로 보든 아니면 직접 精血 그 자체로 보든 모두 '天癸'를 月事が 행해지는 것과 精氣가 가득 찬 상태의 전 단계로 그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같다. 즉, '天癸至'의 상태 이후에 '精血兼盛'이나, '經水下行, 精氣滿溢'과 같은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차등을 두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물질로 '天癸'를 이해하였던 馬蒔 張志聰이나, 그것을 '性(理)'이 '天眞之氣'를 통하여 '血'과 '氣'로 발현하는 것으로 보았던 王冰이나, 그리고 '氣'와 '形'으로 표현하였던 張介賓의 注釋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張介賓이 말한대로 '形'과 '氣'의 관계는 구름과 비의 관계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구름에 적용되는 법칙과 비에 적용되는 법칙에 차이가 있음을 구별하려는 것이다. 즉 구름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비하여 비는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張介賓은 그 단계를 '形'과 '氣'로 명확하게 구분지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注家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馬蒔, 張志聰 등이 '天癸'를 精 혹은 精血로 보고 그 뒤의 精血이 왕성한 상태와 구분한 것은 張介賓이 '天癸'를 '氣'로 보고 精血을 '形質'로 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氣'는 '形之漸'이요, '形'은 '氣之甚'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形'과 '氣'는 性 즉 理를 발현하는 구체적인 도구로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王冰이 '性'과 '氣'로 표현한 것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性'은 '氣'를 빌어 발현되므로 王

冰은 '天真之氣'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性' 혹은 '天真'은 '天癸'의 성질을 하늘로 품부받았다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精血은 그 天真이 남자 16세 여자 14세에 이르러 구체적인 形質로 나타났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각 注家들의 견해는 용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天癸'를 남자의 '精氣滿溢', 여자의 '月事以時下'의 전단계로 지칭하는 의미로 받아들인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역대 『內經』 注釋家들이 '天癸'를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위 도표에서 간과될 수 없는 특이한 점은 '天癸'와 '衝任脈'의 관계에 대한 注釋家들의 견해가 약간씩 다르다는 것이다. 楊上善은 '天癸'가 '衝任脈'을 유동시킨다고 하였고, 王冰은 '衝任脈'과 '天癸(天真之氣)'가 여자 月事와 남자 精氣溢瀉에 함께 관여한다고 하여 별도로 보고 있으며, 張志聰은 '天癸(精血)'가 '衝任脈'에 흐른다고 하여 각각 다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楊上善과 張志聰은 '天癸'와 '衝任脈'이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서로 의견이 같다. 王冰은 '衝任脈'과 '天癸'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天癸'와 '衝任脈'의 관계에 대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馬蒔가 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전에 精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징후로 보고 일찍 죽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서양의학에서도 첫 성교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⁶⁷⁾, 앞으로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 동서의학적 비교연구를 통하여 '天癸'를 GnRH(황체형성호르몬 방출호르몬)으로 보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⁶⁸⁾, 이러한 견해도 위에서 『內經』 注

釋家들이 강조하였던, 남자와 여자에 모두 있으면서 月事나 精氣溢瀉의 이전 단계로서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形'의 '漸'인 '氣'를 현대적인 개념의 호르몬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깊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IV. 結論

『內經』 원문 및 역대 주요 注釋書를 중심으로, '天癸'의 의미에 대하여 각 注釋家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天'의 名義에 대하여 王冰, 馬蒔 등은 선천적인 의미로 보았고, 張志聰은 陰을 생성하는 陽의 의미로 보았으며, 張介賓은 坎卦의 陽爻로 보았다. '癸'의 名義에 대하여 張介賓은 '形'의 전 단계인 '陰氣'로 보았고, 馬蒔와 張志聰은 우리 몸의 구체적인 形質인 精 혹은 精血로 보았다.
2. '天'과 '癸'의 관계에 대하여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天'에서 '癸'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았고, 張介賓은 '天'이 내재된 '癸'로 보았다.
3. '天癸'와 '精血'의 관계에 대하여 楊上善, 王冰, 張介賓 등은 '天癸'를 구체적인 물질, 즉 '精血'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보았으며, 馬蒔 張志聰 등은 '天癸'를 구체적인 물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馬蒔는 임신과 바로 연관있는 精으로 보았으며, 張志聰은 남녀 생리현상과 전반적인 관계가 있는 '精血'로 보았다.
4. '天癸'의 작용에 대하여, 楊上善과 王冰은 여자의 월경 및 임신, 남자의 精의 생성과 소멸 등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張志聰은 '充膚熱肉'의 남녀 공통적인 작용 및 남녀의 性的 차이에 따른 생리적인 현상을 모두 '天癸'의 작용으로 보았고, 그 활동의 유치는 '後天水穀之精'에 의지한다고 주장하였다.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天癸'의 작용을 생식기능의 촉진, 2차

67) 대한산부인과학회교과서 편찬위원회, 『부인과학』, 도서출판 칼빈서적, 한국, 1997년 제 3판, 981쪽.

68) 김은기 외 2인, 「月經의 開始와 閉止에 關與하는 天癸의 東西醫學的 考察」, 『大韓醫學會誌』 제 17권 제 2호, 통권 제 32호, 1996년, 한국, 55쪽, 안종은 외 1인, 「歷代醫家說을 중심으로 살펴본 天癸에 관한 문헌연구」, 『東醫生理學會誌』 제 14권 2호, 통권 제 20호, 1999년, 148쪽.

성장의 발현, 형체의 성장과 노쇠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腎 및 타 장부, 衝, 任, 督, 帶脈 등이 모두 이에 관여한다고 하였다.

5. 역대 『內經』 注釋家들은 '天癸'를 남자의 '精氣滿溢', 여자의 '月事以時下'의 전단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6. '天癸'와 '衝任脈'의 관계에 대하여 楊上善과 張志聰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王冰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天癸'에 대한 개념의 규정에 있어서는 張介賓의 注釋이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며, '天癸'의 작용에 있어서는 張志聰의 注釋이 앞 注家들의 견해를 잘 정리하고, 衝任脈과 관련된 『內經』의 다른 편의 원문을 인용하여 그 의미를 확충하였다는 점에서 탁월하다고 본다.

또한 馬蒔가 제기한 "天癸가 정상적인 나이보다 일찍 '至'하면 일찍 죽는다"고 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녀 각 방면으로 실제적인 임상연구가 기대된다.

天癸에 관한 문헌연구, 『東醫生理學會誌』 제 14권 2호, 통권 제20호, 1999년, 139-148쪽.

8. 楊上善 撰,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한국, 1991년, 23쪽.
9. 吳崑 撰, 張繼有 등 編審,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中醫古籍出版社, 중국, 1988.
10. 王冰 撰,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2년.
11.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북경출판사, 중국, 1999년.
12. 張介賓 著, 欽定四庫全書 44 『類經圖翼』, 대성출판사, 한국, 1995년.
13. 張介賓 著, 欽定四庫全書 44 『類經附翼』, 대성출판사, 한국, 1995년.
14. 張介賓 編著,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4년.

版
誌

參考文獻

1. 高士宗 著, 于天星 按, 『黃帝內經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중국, 1982년.
2. 김은기 외 2인, 「月經의 開始와 閉止에 關與하는 天癸의 東西醫學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제 17권 제 2호, 통권 제 32호, 1996년, 한국, 55쪽.
3. 丹波元簡 等編,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84년.
4. 대한산부인과학회교과서 편찬위원회, 『부인과학』, 도서출판 칼빈서적, 한국, 1997년 제 3판, 981쪽.
5. 馬蒔 撰,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8년.
6. 山東中醫學院 等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중국, 1991년.
7. 안종은 외 1인, 『歷代醫家說을 중심으로 살펴본

天癸新探』, 『上海中醫藥雜誌』, 中國, 1987年 第9期, 中國.

18. 胡天雄 著, 『素問補識』, 中國中醫藥出版社, 중국, 1991.